

마해송의 『앙그리께』에 나타난 만남의 우연성에 관한 연구

박 주 혜*

요약

『앙그리께』는 마해송의 첫 장편동화이다. 그간 『앙그리께』에 관한 연구는 작품 속에 드러난 역사와 작가의 정치적 의식 또는 특정 종교적 측면에서만 분석되어왔다. 작가 마해송이 왜 장편동화를 통해 이 이야기를 해야만 했는지, 『앙그리께』만이 가진 미학적 요소가 무엇인지 살피려는 시도는 없었다. 본 논문은 그 지점에 주목하여 장편동화 『앙그리께』의 미학적 특성을 작품 내적인 측면에서 살펴본다.

작품 내에 등장하는 '만남의 우연성'은 긍정적으로 기능하며 작품의 동력이 되고 있다. 작중인물들의 우연한 만남은 그 자체로서 보상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영애와 가족들이 겪어내는 역경과 그때 만나는 새로운 인연들이야말로 생존 투쟁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우연성을 통하여 작중 인물들이 각자의 자리를 찾아나가는 이 작품은 우연성의 낱말이 아닌, 그 자체를 승리로 기입하는 데 성공한 이야기로 볼 수 있다. 이때 주인공들의 자아 핵심 자체를 형성하는 '절대적 부정성'은 인간다움과 공존의 식으로 드러난다. 여러 인물들의 입을 통해 발화되는 대사 "앙그리께"는 극의 초·중·후반부에 각각 다른 의미로 변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우연적 만남과 대사 "앙그리께"의 반복으로 이루어 낸 인간다움과 공존 의식의 강조는 다수의 사건들이 얽히고설키면서 조직된 복합적인 장편동화였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 한양대학교 창의융합교육원 강사



주제어: 마해송, 『앙그리께』, 만남의 우연성, 절대적 부정성, 6·25 전쟁

목
차

1. 서론
2. 생존 투쟁의 과정과 만남의 우연성
3. 인간다움의 강조와 공존의식
4. 대사 “앙그리께”에 담긴 의미와 변화 양상
5. 결론

1. 서론

마해송은 1920년대 초반부터 1966년 타계 이전까지 꾸준히 아동문학 작품을 발표한 한국의 대표적인 아동문학가이다. 1920년대 초 단편동화 『바위나리와 아기별』을 발표하였는데, 이 작품은 우리나라 “최초의 창작동화”¹⁾로 일컬어진다. 한국의 근대 동화를 개척한 선구자였던 마해송은 일제 강점기에는 식민지 상황 속에서 고통 받는 민족의 현실을 보여주는 『토끼와 원숭이』, 『떡배단배』 등의 중·단편동화를 창작하였다. 이후 1950~60년대에는 정치적 입장을 명확히 하며, 사회를 비판하는 내용의 『앙그리께』, 『모래알 고금』 연작 등 장편동화를 발표하였다.

이처럼 마해송 문학은 크게 세 시기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첫째 1920년대, 둘째 1930~40년대, 셋째 1950~60년대이다. 이때 둘째와 셋째를 나누는 시점은 6·25전쟁이다.²⁾ 6·25 전쟁 이

1) 이재철, 『아동문학의 이론』, 형설출판사, 1984, 89면.

2) 원종찬, 『해방 전후의 민족현실과 마해송 동화』, 『한국 아동문학의 쟁점』, 창비, 2010, 109-110면.

후, 마해송의 문학 세계는 크게 변화한다. 첫 번째 특이점은 그간 쓰지 않았던 ‘장편동화’를 창작하였다는 점이고, 두 번째 특이점은 정치나 사회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해송이 종군 작가로 활동을 하였으며, 전쟁 이후 적극적인 반공주의자가 되었다는 것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하여 이미 밝혀진 사실이다. 작품 속에 작가가 살아온 현실적 삶에 대한 요소들이 투영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작가 마해송이 왜 ‘장편동화’의 형식을 빌려 말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다. 이때 창작된 작품을 보다 세밀하게 살펴보는 것은 이에 대한 답을 찾아보는 일이 될 것이다.

마해송은 문학적 성과를 인정받아 다양한 상을 받았으며 문단에서의 입지도 매우 컸다.³⁾ 그러나 그에 비하여 그에 대한 연구는 왕성히 이루어지지지는 않았는데, 특히 후기 작품에 대한 조명은 부족한 편이다.

본 논의에서 주요하게 살펴 볼 작품은 마해송의 첫 장편동화인 『앙그리게』이다. 『앙그리게』는 1955년 잡지 『소년세계』에 2회 연재된 바 있으며, 같은 해 8월 21일부터 10월 26일까지 『한국일보』에 60회를 연재했고, 이듬해인 1956년 6월 29일부터 9월 19일까지 『

원종찬은 두 번째와 세 번째를 나누는 기준을 6·25 동란으로 나누는 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두 번째 시기에 해당하는 작품들은 민족현실에 대한 알레고리로서 시사성을 강하게 띠고 있지만, 6·25 동란 이후에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반공주의를 적극 내세우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앞 시기와는 구분된다고 분석한다. 원종찬은 이러한 시기 구분과 작가 마해송의 삶의 전환을 이루는 주요 이력을 함께 살펴보고 있다.

3) 마해송은 1959년 『모래알 고금』으로 제6회 자유문학상을, 1964년 『떡배 단배』, 『모래알 고금3』으로 제1회 한국문학상을 수상한 바 있다. 아동문학인으로서 는 최초의 수상이었다. 2005년부터는 문학과지성사에서 ‘마해송문학상’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04년 10월 16일에는 마해송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경기도 파주출판문화단지에서 ‘마해송 문학비’가 세워졌다. (원종찬, 『해방 전후의 민족현실과 마해송 동화』, 『한국 아동문학의 쟁점』, 창비, 2010, 106-107면.) 2015년에는 문학과지성사에서 『마해송 전집』이 완간되었다.

경향신문』에 82회를 연재하며 끝을 맺었다.”⁴⁾“이 작품들은 1959년 1월 가톨릭출판사에서 『앙그리께』라는 제목의 단행본으로 발간되었다.”⁵⁾

작품 『앙그리께』에 대한 그간의 주요 논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원종찬은 환상성과 저항성으로 귀결되었던 작가 마해송에 대한 그간의 논의를 넘어서서 작가의 전기와 작품 세계를 복합적으로 살핀다. 작가 전기의 주요 요소가 ‘수평적 전환의 계기’라기 보다 기존의 요소에 새롭게 보태지면서 ‘겹을 이루는 굴절의 계기’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전쟁이 끝나고 쓴 『앙그리께』에는 반공주의가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으며, 반공주의는 일종의 경험적 주관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일면성의 한계를 강화시켰다고 평가한다.⁶⁾

김상욱은 『앙그리께』를 통하여 마해송의 정치적 상상력을 비롯한 이데올로기적 지향과, 그와 팽팽한 대립각을 세우며 펼쳐지는 현실성에 주목한다. 경험적 현실과 상상적인 허구가 어느 한편으로 기울지 않고 팽팽하게 맞섬으로서 작품이 형성되고 있음을 분석하였다. 하지만 동심주의와 이데올로기적 단순성, 이분법적 인식 등을 작품의 한계로 본다.⁷⁾

선안나는 『앙그리께』에 나타난 작가 마해송의 반공의식을 분석하였다. ‘기득권 계층의 한국 전쟁 이야기’라고 평하며, 작가 마해송의 방공주의 이념을 당당하게 형상화 한 작품이라고 분석한다.⁸⁾ 작가

4) 마해송, 『앙그리께』, 가톨릭출판사, 1959, 263면.

5) 엄혜숙, 『『앙그리께』를 통해 본 한국 전쟁 체험』, 『앙그리께』, 문학과지성사, 2014, 282면.

6) 원종찬, 『해방 전후의 민족현실과 마해송 동화』, 『한국 아동문학의 쟁점』, 창비, 2010, 106-134면.

7) 김상욱, 『이데올로기적 편견과 현실주의적 방법의 충돌 - 마해송 작품론 - 마해송의 『앙그리께』를 중심으로』, 『어린이문학의 재발견』, 창비, 2006, 179-198면.

의 관심이 개별 어린이보다는 어른 사회에, 서민보다는 기득권층에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마해송은 작품 속에서 자신의 전쟁 체험을 ‘공식적인 앓’과 일치시켰으며, ‘주관적 체험’을 의문 없이 ‘일반화’시키고 있다고 본다.⁹⁾

엄혜숙은 작품 속의 한국 전쟁 체험과 그 형상이 작가 개인의 역사와 더불어 사회적 기록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작품 속에 나타난 ‘나쁜 공산군’과 ‘좋은 국군’이라는 이분법은 마해송의 반공주의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분석한다. 또한 작품 속의 천주교 양상과 가족들이 해체되고 재결합하는 과정을 통해 가족 개념의 변모하고 있음을 분석하였다.¹⁰⁾

김유진은 『앙그리께』에 나타난 가톨릭 신앙관에 대한 연구를 하였으며¹¹⁾, 장영미는 작가 마해송이 겪은 전쟁의 기억과 그 기억이 작품 속에 서술되는 양상을 ‘기억의 정치학’ 측면에서 살펴보았다.¹²⁾

작품이 시대를 떠나 존재할 수는 없겠지만, 그간의 연구는 작품 속에 드러난 역사와 작가의 정치적 의식 또는 특정 종교적 측면에서만 분석되어왔으며, 장편동화 『앙그리께』만이 갖고 있는 미학적 요소를 살피려는 시도는 없었다.

본 논의는 『앙그리께』가 드러내고 있는 미학적 요소를 작품 내적

8) 선안나, 『반공주의 작가와 작품들』, 『아동문학과 반공이데올로기』, 청동거울, 2009, 147면.

9) 선안나, 『마해송의 『앙그리께』 분석』, 『아동문학과 반공이데올로기』, 청동거울, 2009, 163면.

10) 엄혜숙, 『『앙그리께』를 통해 본 한국 전쟁 체험』, 『앙그리께』, 문학과지성사, 2014, 282-299면.

11) 김유진, 『마해송 동화와 한국 가톨릭 교회』, 『한국학연구』 제45집,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7, 321-343면.

12) 장영미, 『전쟁의 기억과 기억의 정치학 - 마해송의 『앙그리께』를 중심으로-』, 『돈암어문학』 제31집, 돈암어문학회, 2017, 87-109면.

인 측면에서만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앙그리께』는 마해송의 첫 장편동화이며, 그간 창작한 중·단편동화와는 다르게 장편동화만의 미학을 갖고 있다. 이러한 미학을 ‘만남의 우연성’ 측면에서 살펴 보려 한다. 그동안 작품성을 떨어트리는 요소로 판단되어 왔던 ‘우연성’이 작품의 근본적인 동력이며, 이 작품의 긍정적 측면으로 기능한다는 것을 밝혀보려 한다. 이러한 ‘우연성’의 핵심은 작가 마해송이 작품을 통해 말하고자 했던 주제와 맞닿아 있다. 작중인물의 입을 통해 반복되었던 “앙그리께”라는 대사는 다양한 상황을 통해 그 의미가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우연성’과 함께 작품의 중핵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제와 맥을 같이 한다. 그 결과 『앙그리께』가 작가 마해송의 작품세계에서 정치적·사회적·종교적 발화를 하고 있는 작품일 뿐 아니라, 작품 자체로서도 충분히 논의되어야 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려 한다.

2. 생존 투쟁의 과정과 만남의 우연성

『앙그리께』는 평화롭게 살던 가족이 한국 전쟁으로 흩어졌다 다시 만나게 되는 과정을 그린다. 흩어진 각각의 인물들은 이야기의 전반적인 중심축을 이끌어 나간다. 먼저 서울 집에 남아 있다가 공산군에게 끌려가게 되는 식모 박영애의 이야기가 한 축을 담당한다. 둘째로 서울 집에 그대로 남아 있는 어머니의 양어머니인 마산 할머니가 또 다른 한 축을 담당한다. 마지막으로 대구로 피난을 갔다가 다시 서울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가족들(어머니, 아버지, 민일, 민수, 민애)이 마지막 축을 담당한다.

가족이 되어 함께 살아가던 이들이 흩어지는 과정은 매우 흥미롭다. 이들은 가족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피를 나눈 혈연으로서의 가족

은 아니다. 피난길에 오르며 가족들은 흩어지는데, 이때 대구로 피난을 떠나는 사람들은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들뿐이다. 물론 아버지가 회사 일 때문에 극의 중반부 이후에 가족들과 합류하는 것으로 그려지지만, 이들의 상봉이 아주 힘들게 묘사되지는 않는다. 철저히 혈연 위주로 가족의 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해체된 가족들이 살아가는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며 작품은 전개된다. 위기의 상황에 놓인 각각 인물들의 생존 투쟁 방식이 이야기의 핵심인 것이다.

공산군에게 끌려 간 영애는 탈출을 하고, 국군을 따라다니며 전쟁의 현장을 체험한다. 영애를 통해 남북 양측의 참여한 전선 변화와 군대의 이동을 알 수 있다. 영애는 이 과정에서 공산군 김동무에 대해 알게 되고, 공산군에게서 도망치다 사망을 하는 이상호 씨를 만나고, 국군에 합류하여 구태식 중위와 우정을 쌓는다.

서울 집에 남아 있던 마산 할머니는 피난을 떠난 가족과 공산군에게 끌려 간 영애를 걱정한다. 뒷집 할머니는 혼자 남은 마산 할머니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며, 할머니는 걱정의 순간마다 천주신을 찾는 모습을 보인다.

부산을 목표로 피난을 가던 어머니와 민애, 민일, 민수는 피난 중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소통한다. 새로 사귀 친구 고수경에게 약을 받기도 하고, 신문팔이를 하기도 하고, 민애 어머니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기도 한다. 민애가 이웃 옥순과 친해지며 알게 된 옥순의 친구 구 하사는 서울로 들어가 마산 할머니와 영애의 소식을 전해주는 역할을 하며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고리가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결국 영애와 마산 할머니, 가족들은 다시 재회하고 이들의 도움으로 가족을 잃어버렸던 많은 사람들이 소식을 알게 되고, 다시 만나게 된다.

이러한 결말은 이 작품의 한계로 지적되어왔다. 작품의 리얼리티

를 살리기보다는 우연성이 남발되었다는 것이다. 민애 형제들이 대구에서 국군 병원에 아버지 지인을 방문했다가 구 하사의 오빠인 구 태식 중위를 만난다든지, 영애가 이상호 씨 집을 찾아갔다가 구태식 중위와 꼭 빼닮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만난다든지 하는 것은 지나친 우연이며, 우연한 만남이 출몰하는 것은 이 작품의 한계라는 것이다.¹³⁾

작품에서 우연한 만남이 계속된다는 것은 작품의 개연성 측면에서 부적합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작가가 작품을 구성할 때 무언가를 쌓아 올려 대망의 막을 내리게 되는 결말에 실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기존의 작품 분석에 있어 아주 기본적이고 당연한 틀로 여겨져 왔다. 하나의 이야기를 주인공이 고난과 역경을 견뎌 내며 일종의 성장을 이루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이때 성장을 위한 결말은 앞에 쌓아진 수많은 사건들과 개연성 측면에서 당연히 부합되어야 한다.

하지만 시선을 조금 바꾸어 본다면 어떨까. 지젝에 의하면 “포기라는 소외적 노동에 의해 초래되는 고통은 터널 끝에서의 보상을 기다리며 인내심 있게 감수해야 하는 어떤 중간적 순서가 아니”¹⁴⁾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과정 끝에 얻을 보상이나 이익 같은 것은 없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바로 주체적인 입장을 바꾸는 것이다.

13) 엄혜숙, 『『앙그리께』를 통해 본 한국 전쟁 체형』, 『앙그리께』, 문학과지성사, 2014, 288-289면.

14) 슬라보예 지젝, 조형준 옮김, 『헤겔 레스토랑』, 새물결, 2013, 365면. (지젝은 헤겔의 ‘고통’을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고통을 감내하여 결과적으로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무언가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존재하는 것은 이 고통, 즉 ‘부정성’일 뿐이다. 지젝이 볼 때 헤겔이 말하고자 하는 바에서 중요한 것은 자아의 부정적인 힘이다. 부정성의 긍정적 위대함으로의 전도 같은 것은 없다. 유일한 ‘위대함’이란 부정성 자체일 뿐이다. 이와 같은 시선에서 『앙그리께』를 살펴본다면, 영애와 작중 인물들이 겪고 있는 고난의 과정이 행복한 결말을 위해 거쳐야 하는 중간적 순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 작중 인물들에게 위대한 순간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통과 포기는 그 자체의 보상”¹⁵⁾이다.

『앙그리께』를 주인공 영애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평안을 되찾는 이야기라고 요약하는 것이 아니라, 영애가 공산군 김동무에게 끌려갔다 탈출을 하고, 이상호씨를 만나 유언을 듣고, 국군의 품으로 돌아와 구태식 중위와 우정을 쌓는 일련의 과정 자체가 영애가 얻는 보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작품은 행복한 결말을 맺는다. 공산군이 서울을 점령했던 것을 다시 국군이 밀고 올라갔으며, 그 덕에 다시 가족들은 서울 집에 모여 평안을 되찾는다. 일반적으로 피난 중의 생존 투쟁 과정은 결과적으로, 빼앗겼던 것들을 되찾았기에 승리의 과정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때 중요하게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남북 전쟁에서의 승리 또는 결과적인 승리(다시 국군이 서울을 점령했다는 의미로서의 승리, 주인공들이 행복해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승리)가 아니라, 개별적 주체들이 얻게 되는 진정한 ‘승리’의 개념이다.

지젝은 “생존 투쟁에서 승리는 오직 부산물로만 얻을 수 있다”¹⁶⁾고 말한다. 투쟁의 직접적인 승리와 패배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투쟁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패배하게 되는 것이며, 오직 해결 불가능한 문제에 몰두하는 존재만이 가능한 지식에서 돌파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¹⁷⁾

영애와 가족들이 겪어내는 역경과 그때 만나는 새로운 인연들이 야말로 생존 투쟁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앙그리께』는 생존 투쟁의 과정에서 주인공들이 겪어 낸 수많은 사건들 자체가 ‘승리’로 기입되는 이야기로 보아야 한다. 인물들이 온전한 삶의 자리를 찾아내는 결말은 ‘우연성’의 남발이 아닌, 그들이 겪어낸 고난

15) 슬라보예 지젝, 조형준 옮김, 『헤겔 레스토랑』, 새물결, 2013, 365면.

16) 슬라보예 지젝, 조형준 옮김, 『라캉 카페』, 새물결, 2013, 1155면.

17) 슬라보예 지젝, 조형준 옮김, 『라캉 카페』, 새물결, 2013, 1155면.

과 역경 자체가 보상으로 기능하며, '승리'라는 이름으로 기입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만남의 우연성'은 다시 해석되어야 한다. 국군과 함께 다니던 영애는 의정부에 올 수 있게 된다. 영애는 공산군에게서 탈출을 할 때 만났던 이상호 씨의 유언을 그의 가족들에게 전해줘야 한다. 이상호 씨는 서울여관에 가면 자신의 동생을 만날 수 있다고 했다. 영애는 의정부에 도착하자 서울여관을 찾아다닌다. 하지만 의 정부는 천막들과 끝없는 허허벌판뿐이다. 모두 재가 되어 타버렸고, 건물의 흔적은 찾을 수 없다. 이때 영애는 이 소위와 시장 구경을 하다가 천막집·판잣집으로 되어 있는 가게 중 우동 가게를 찾아 들어간다.

“우동이나 한 그릇 먹을까?”

이 소위가 군인과 영애를 돌아보며 말하고 우동집으로 들어갔다.

그중 깨끗해 보이는 판잣집이었다. 군인 몇 사람이 앉아서 곰탕도 우동도 먹고 있었다. (중략)

우동 세 그릇을 갖다 놓는 주인에게 영애는 불쑥 이렇게 말했다.

“서울여관 하던 이경호란 사람 아세요?”

“무어? 서울여관?”

주인은 눈이 둥그레졌다.

“내가 바로 이경호데……”

주인은 의아하다는 듯이 영애를 내려다보고, 영애는 셋별 같은 눈을 말뚱거리며 쳐다보고 있었다. (중략)

주인은 영애에게 말을 재촉한다. 영애는 너무나 뜻밖에도 대뜸 이경호 씨를 만나게 되어서 어리둥절했다.

“이상호 씨 아세요?”

“아다뿐인가 형님인데! 근데?”

주인은 바짝 다가선다. 그러자 영애는 고개를 숙였다.

이상호 씨 마루 아래서 죽었어요 하면 얼마나 놀라고 슬퍼
할까 생각하니 앞질러서 눈시울이 뜨거웠다.¹⁸⁾

영애는 우연히 들어간 우동 가게에서 자신이 찾던 사람을 만나게 된다. 형의 소식을 전해주었다는 것에 감사한 이상호씨의 동생과 그의 부인은 영애를 “딸같이 보아”(189면)주면서 “같이 살자!”(191면)고 제안한다. 또한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라. 공책도 연필도 사 줄게! 월사금 내라면 그것도 줄게!”(192면)라며 전폭적인 지지를 해준다.

이러한 과정은 만남의 우연성 자체가 영애에게 그럴듯한 보상 자체가 되고 있음을 표면적으로 암시한다. 이야기는 전체 분량에서 중반부에 위치해 있다. 그러나 만남의 우연성이 만들어 낸 사건들은 행복한 결말을 위해 보상을 기다리며 인내심 있게 감수해야 하는 중간적 순서로 위치지어지지 않는다. 피난을 간 가족들과 집에 남아 있는 마산 할머니가 걱정되기는 하지만, 영애의 삶은 의정부에서 지내는 현재에 있다. 현재는 영애에겐 그동안 잃어버렸던, 혹은 원래부터 갖고 있지 않았던 것들에 대한 보상이다.

이때 보상은 물질적인 것들로만 치환될 수는 없다. 영애가 갖고 있던 이상호 씨에 대한 마음의 부담을 덜어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전까지 영애는 “마루 아래 숨어 있다가 국군 만세를 부르고 죽은 금순 아버지 이상호 씨의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183면)으며, “의정부에 가면 이상호 씨의 동생 이경호란 사람이 하는 서울여관을 찾아가야겠다고”(183면) 생각해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각의 기저에는 이상호 씨와 영애의 우정이 깔려 있다. 영애가 용기 내어 공산군으로부터 탈출을 하는 결정적 계기는 자신이 꾸 꿈 때문이었다. 흰옷을 입은 사람이 자신을 살려준다는 꿈을 꾸고 영애

18) 마해송, 『앙그리께』, 문학과지성사, 2014, 186-187면. (이하 면수만 표기)

는 탈출을 한다. 이때 만난 사람이 흰옷이지만 검정이 묻어 시꺼멓게 변한 채 다쳐서 마루 아래에 숨어 있는 이상호 씨다. 이상호 씨는 죽기 전, 영애에게 자신의 이야기만 늘어놓는다. 영애에게 그는 두려운 과정 중에 만나 의지를 할 수 있는 첫 번째 사람이었다. 이후 영애는 국군을 만나지만 “이야기할 사람이라고는 없”(100면)고, 계속 이상호 씨가 생각이 난다. “그 사람을 혼자 두고 나온 것이 안 된 것 같다.”(101면)

이상호 씨는 영애가 공산군에게 탈출을 해서 국군으로 합류를 해, 의정부까지 올라와 이경호를 찾아다니는 일련의 과정에 있어 영애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다. 이렇게 새롭게 만나게 된 인연인 이경호는 이후 영애가 다시 가족들을 만나게 되는 데 있어 또 다른 힘을 주는 관계가 된다.¹⁹⁾ 이처럼 영애가 겪고 있는 생존 투쟁의 과정들은 그 자체가 보상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구로 피난을 떠난 가족들은 어떨까. 구태식 중위와 구정숙 하사가 서로의 행방을 알게 되는 장면도 만남의 우연성으로 처리된다. 아버지의 동료인 강수철이 국군 병원에 입원해 있음을 알게 된 민수, 민일, 민애는 병문안을 간다. 강수철 일등병은 대단히 반가워한다. 그런데 민애는 딱 데만 보고 있다.

“중위 구태식.”

“앗!”

‘중위 구태식’이란 명패를 보고는 민일에도 소리를 내어 놀랐다.

19) 영애는 이경호의 집에서 일을 도와주며 학교를 다닌다. 그러한 와중에 영애는 친구들이 모두 “양갈보”(192면)라고 놀리는 ‘한순이’를 만나게 된다. 한순이는 영애와 함께 서울로 오게 되고, 영애가 자신을 버린 친엄마 때문에 괴로워 할 때 영애에게 큰 힘이 되어준다. 이러한 면모는 과정의 우여곡절과 만남의 우연성이 주인공에게겐 엄청난 힘이 되며, 작품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민수도 돌아다보았다.
 구태식 중위는 가만히 누워 있었다. (중략)
 “구정숙 하사 아세요?”(중략)
 “내 누이동생인데 하사?”
 “고향이 원산야요?”
 구태식 중위의 얼굴이 또 한 번 흔들렸다.
 “원산이다!” (223-224면)

이들이 병원에 병문안을 가게 된 이유는 시장에 나가서 장사를 시작한 어머니 덕분이다. 시장에서 장사를 하던 어머니는 자신에게 거수경례를 하는 군인을 만나게 된다. 그는 아버지 박영식 과장과 함께 일을 하던 강수철이다. 강수철은 전쟁 때문에 군대에 들어가게 되었고, 박영식은 군대에 들어간 그를 대신해 강수철의 가족을 도와 주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민일, 민수, 민애는 병문안을 가게 되고, 거기에서 구태식 중위를 만난다.

대구에서 피난길 정착을 한 민애의 가족은 아랫방에 살고 있는 옥순이와 친해진다. 옥순에게는 매주 일요일마다 찾아오는 구정숙이라는 여군 하사 친구가 있다. 소재목 ‘피로운 가운데’(151-163면)에 서는 민일, 민수, 민애가 우정을 쌓는 장면들이 등장한다. 생존 투쟁의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인연은 생겨나고, 이러한 인연이 그 체로 보상이 되고 있음은 작품의 여러 상황에서 증명된다.

3. 인간다움의 강조와 공존의식

주인공은 전쟁이라는 “압도적인 파괴의 힘 속에서 자기 자신의 자아의 핵심 자체를 형성하고 있는 ‘절대적 부정성’을 인식”²⁰⁾한다. 여

20) 슬라보예 지젝, 조형준 옮김, 『헤겔 레스토랑』, 새물결, 2013, 364면.

기에서 ‘절대적 부정성’이란 “자기의식의 단순한 본질”²¹⁾로 따져 볼 수 있다. 개별적인 인간을 구성하는 하나의 절대적인 힘이 ‘절대적 부정성’인 것이다. 그렇다면 『앙그리계』에서 주인공들의 내면적 본질을 형성하고 있는 중핵인 ‘절대적 부정성’은 무엇인가. 이것은 작가 마해송이 작품을 통해 전달하고자 했던 가장 큰 것이기도 한데, 작품 속 인물들의 내면적 본질을 형성하는 절대적 힘은 ‘인간다움’과 ‘공존의식’이다.

영애는 의정부에서 이경호와 함께 지내면서도 여전히 헤어질 가족들을 생각한다.

영애는 잠이 오지 않았다. 서울 집에 있는 마산 할머니 생각이 났다. 죽이라도 누가 끓여 드리나? 돌아가시지나 않았을까? 또 피난 간 아버지 어머니 민일이 민수 민애 생각도 났다. 부산으로 간다고 했는데 부산에서 어떻게들 지낼까? 걱정이 되었다. 어머니도 보고 싶고 민애도 보고 싶다.(196면)

영애에게는 피난을 떠난 민애네 식구들과 마산 할머니가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다. 당대의 많은 작품들이 더부살이하는 식모의 삶을 인간적인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영애의 삶은 조금 다르다. 영애는 작품의 초반, 피난을 떠나기 이전부터 가정에서 함께 살아가는 인격체로 대우된다. 민애와 영애가 캐리멜을 먹는 장면에서 “민애는 두 개를 한 입에 넣고 영애에게 한 개를 주었”(21면)지만, 영애의 설움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영애를 혼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품어주는 지점에서 빛을 발한다. 어머니는 핑계를 대는 영애를 “우습다는 듯”(23면) 바라봐주고, 아버지는 웃으며 영애가 “뚝뚝하구먼!”(24면)이라 이야기를 한다. 영애는 민애네 집에서 식모살이를 하고 있지만, 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21) 슬라보예 지젝, 조형준 옮김, 『헤겔 레스토랑』, 새물결, 2013, 364면.

있었다. 영애 또한 가족들을 진심으로 사랑한다.

영애는 공산군 김 동무에게 끌려가 밤하늘의 별을 보며 그러한 감정을 절절히 깨닫는다.

밤하늘에는 유난히 별이 총총했다.

그 별 하늘을 한정 없이 쳐다보고 있으면 별 생각이 다 났다.

용기종기 모여 있는 별은 하나는 아버지 같기도, 하나는 어머니 같기도 했다.

작은 별 하나는 영애다.

그런데 그 어머니 아버지는 일본 오사카에 살던 친어머니 아버지가 아니고 서울 집 어머니 아버지였다. 아무리 친어머니 아버지를 찾아보려 해도 나타나지 않았다. 서울 집에 있을 때에는 어머니에게 꾸중을 듣거나 해서 서러울 때에 뒤꼍에 가서 울고 있으면 곧잘 친아버지 어머니가 아무 데서나 나타나 주었던 것이다.(88면)

영애에게 가족은 오사카에서 자신을 낳고 버렸던 친어머니가 아니라 함께 몸을 부대끼고 살아가던 민애네 가족들이다. 어머니에게 혼도 나고 꾸중을 들은 적도 있지만 그것이 비정상적인 혼냄은 아니었으며, 영애를 걱정해서 한 꾸지람이라는 것을 영애는 알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친어머니가 영애를 데리러 왔을 때, 영애는 그녀의 손길을 피하고 거절한다. 친어머니는 다섯 살짜리 영애를 버렸다. 새로 결혼한 남편이 영애를 “창경원에라도 갖다 버리라는 바람에 그만 그렇게 했”(259면)을 만큼 매정한 사람이다. 친어머니는 영애가 자신을 거절하자 영애의 행복을 빌어주는 것이 아니라 “꽤 씩한 년! 어미도 몰라보고”(274면)라며 자식보다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비정한 모정을 보여준다.

영애도 타인을 배려하고, 예의를 지킬 줄 아는 작품의 초·중반부에 한결같았던 모습과는 다르게 친어머니에게는 매정하고 앙칼진 모습을 보인다. 영애는 친어머니에게 “엄마 아니다!”(258면)고 딱 잘라 말을 하고, “비슬비슬 피해 가며 툭 쏘”(258면)기도 한다. “집에 들어갈 것도 없다며 뿌리”(258면)친다. 이전과는 다른 영애의 모습은 영애가 진정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드러내는 사건이다.

결말부에 드러난 영애의 심리로 보아 영애는 친어머니에 대해서 심리적 경계선이 그어져 있다. 미움이나 서운함이 아니라 나와는 상관없는 존재라는 것이다. 따라서 영애의 매정한 행동들은 작품 속에서 더욱 도드라져 보인다. 영애의 매정함은 마음을 나눈 가족들과 떨어져 살아가기 싫음에 기인한다. 영애에게 일종의 공포심일 텐데, 진정한 “열정은 오직 공포를 배경으로 해서만 출현할”²²⁾ 수 있다. 영애의 행동은 영애의 삶에 있어서 진정한 ‘열정’은 무엇이었는가를 보여주는 계기이다. 영애의 매정함은 인간다움의 도리와 공존하는 삶에 대한 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반증한다.

그 여자가 나갈 때에는 민애 어머니에게까지 욕지거리를 퍼부었다.

어떻게 가르쳤기에 제 어미도 몰라보는 괴씸한 계집아이를

22) 슬라보예 지젝, 조형준 옮김, 『라캉 카페』, 새물결, 1469면.

지젝은 불안과 용기가 한 쌍의 대립물을 형성하는 것처럼 공포와 열정 또한 대칭적인 한 쌍을 형성한다고 본다. 오직 불안을 배경으로 해서 용기가 출현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진정한 열정이라는 것은 오직 공포를 배경으로 해야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열정은 매우 기만적인 것이다. 우리는 주변에서 온갖 거짓 열정들을 발견하지만, 진정한 열정은 오직 공포를 배경으로 해서만 출현할 수 있는 것이며, 그러한 공포 속에서 등장한 열정만이 ‘진정성’이 보장된다. (위의 책, 1468-1469면) 따라서 불안은 열정의 필수적 배경이며, 불안 없이는 열정도 없고, 열정은 그 자체로 시작되지 않으며, 형식적으로는 불안이 전환된 결과로 보아야 한다.(위의 책, 1474면)

만들어 놓았느냐는 것이다. 마산 할머니는 우들우들 떨고 있었다. 어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내가 죄를 지었어요!”

민애 어머니는 그런 말을 했다.

영애와 친어머니의 사이를 끊어 놓았으니 이런 큰 죄가 어디 있겠느냐는 것이었다.(274면)

민애의 어머니는 영애와 영애의 친어머니 관계가 틀어지자, 그것이 마치 자신의 잘못인 듯 느껴 먼저 사과를 하는 인간적인 면모를 보인다. 이러한 면모는 영애의 친어머니와 민애 어머니의 차이를 명백히 드러낸다. 영애가 의지하는 민애 어머니가 어떠한 점에서 영애에게 더욱 신뢰를 얻었는지는 자명하다.

영애가 꿈속에서 민애 어머니에게 투정을 부리는 장면은 민애 어머니와 영애 사이를 더욱 돈독히 만든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진정으로 보듬게 되는 것이다. 처음에는 친어머니가 그리워서 꿈을 꾸며 잠꼬대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민애 어머니는 영애의 꿈에 나타난 것이 친어머니가 아니라 자신이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가슴이 뭉클해”(279면)진다.

이 지점에서 혈연으로서의 가족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서로 아끼고 돌보아야 비로소 가족”²³⁾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면서, 사람이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인간다움’과 서로 함께 하는 ‘공존 의식’이 더 강조되는 것이다.

민애 어머니는 작품 속에서 가장 ‘인간다움’을 많이 드러내는 캐릭터이다. 피난 중에는 시장에 나가서 장사를 시작하는데 그런 쪽으로 용기를 내지 못했던 사람이 나가서 장사를 하는 이유는 단순히

23) 엄혜숙, 『『앙그리께』를 통해 본 한국 전쟁 체험』, 『앙그리께』, 문학과지성사, 2014, 288면. (엄혜숙은 위의 논문에서 가족의 개념이 변화하고 있음을 분석하였다.)

돈 때문만은 아니다.

민애 어머니는 날마다 시장에 나갔다. 돈 욕심이 난 것은 아니었다. 날마다 나가는 버릇같이 되었다.

덜다고 나가지 않으면 고맙게 해 주는 옥순네에게 미안하다는 생각도 있었다.

팔리면 민애 어머니도 돈이 생기지만 옥순네도 좋기 때문이다.(220면)

민애 어머니는 자신의 가족을 도와주는 이웃인 옥순네에 대한 인간적인 도리로 용기를 낸 것이다. 민애 어머니는 마산 할머니가 “돌아가시지 않았는지? 영애도 잘 있는지? 할머니에게 편지도 전해주었으면…”(154면)하는 부탁을 정숙에게 한다.

작품 속에는 민애 아버지의 인간다움도 잘 드러난다. 민애 어머니가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을 때, 그녀는 아버지 회사 동료를 만난다. 전쟁 중이라 회사는 서울에서 해산을 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지금 회사를 지키며 사원들을 돌봐준다. “회사에 일이 없어도 우리들의 일을 도맡아 봐 주시니까요. 과장님들은 월급이 나오지만 우리 과장님은 사원들의 사정을 너무 돌봐주시기 때문에 댁에 가지고 가는 월급으로는 어려우실 거야요.”(147면) 구중위와 구사하가 서로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도 아버지 회사 동료 덕분이었다. 아버지 회사 동료인 강수철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강수철 회사원이 국군에 들어간 후에 민애 아버지는 그의 가족에게 매달 쌀과 돈을 보내주었다고 했다. 늙은 어머니와 아내와 아이 둘, 네 식구가 그것으로 굶지 않는다고 아내는 편지마다 써서 보냈다고 말했다.(221면)

민애 아버지의 선행을 알게 된 어머니는 “참 좋은 일을 하시면서

왜 내게는 말씀하지 않았어요?”(221면)라고 묻는다. 모두가 힘든 생존 투쟁의 상황 속에서 타인을 돕는 민애 아버지의 모습과 그러한 남편의 생각에 동의하는 부인의 모습에는 작가의 뚜렷한 의도가 들어있다.

피난을 가는 트럭에서 민수는 탈이 난다. 열을 재보니 39도가 넘는다. 이때 만나게 된 어린이 수경은 “미국서 새로 나온 귀한 약”(58면)을 준다. 약을 먹고 민수는 다음 날 훌훌 털고 일어나고, 수경과 민수는 친구가 된다. 이때 주목해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수경에게 약을 주지 말라며 눈치를 준 그의 어머니다. 수경은 자신의 아버지가 고아원을 하는데, 고아원을 하는 아버지는 정직하지 않다고 말한다. 수경은 “네가 먹은 약 있지. 그거 한 병 가지고 있어. 근데 너 한 개 주겠다니까 엄마가 날 꼬집지 않아! 저 케찹에도 여러 가지 약이 많아. 모두 고아원 거야. 고아원 아이들에겐 아파도 약 안 주구”(65면)라며 어머니의 행동을 비판한다. 또한 “좋은 약은 안 주지 뭐! 팔아먹구. 양복이니 속옷이니 담요니 좋은 건 집으로 가져온다”(65면)며 고아원 물품을 빼돌리는 아버지의 행동도 비판한다. 수경의 부모님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부산까지 공산군이 오며, 미국에 가야”(66면)한다는 것이다. “미국에 가려면 달러가 있어야 하고 댄스를 해야 한 대. 엄마는 댄스 아주 선수다. 그렇지만 난 아버지 어머니 생각이 나쁘다고 생각해”(66면)

수경은 부모의 이기적이고 나만 살겠다는 생각을 비판한다. 이러한 비판의식은 작품 전체의 성격을 규정짓는다. 수경 부모와 민애 부모의 캐릭터는 정반대에 놓여 있으며, 작가는 민애 부모의 캐릭터나 공산군에게 탈출해 오는 과정에서 이상호 씨를 돕는 영애의 행동, 모두가 놀리는 한순이를 챙기는 영애의 모습을 통해 진정한 인간다움과 공존의식에 대해 말한다.

이러한 인간다움과 공존의식은 작품 속 인물들을 구성하는 중핵

이며, 『앙그리께』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이다. 영애가 그의 친어머니와 화해하지 못한다는 결말은 비극임에도 불구하고 『앙그리께』가 해피엔딩으로 읽혀지는 이유는 진짜 중요한 것은 서로를 위해주는 진정한 마음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작품에 등장하는 만남의 우연성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보이지 않는 끈으로 작용하며, 고난과 역경 자체를 ‘승리’로 기입하는 데 성공한다.

우연적 만남의 유일한 실패는 영애의 친어머니이다. 영애의 친어머니는 거리에서 우연히 영애가 자신의 딸임을 발견하고 주위를 서성이다, 그녀를 찾아온다. 전 남편과 헤어졌고, 형편이 나아졌으니 자신의 손으로 버렸던 딸을 다시 데리고 가겠다는 것이다. 영애는 그녀가 내민 손을 끝내 거절하고, 영애의 친어머니는 사납고 자신만을 위하는 본연의 모습을 드러낸다. 영애의 친어머니는 근본적으로 인간다움을 지니고 있지 못하며,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의식이 없는 캐릭터로 그려진다. 야속하고 매정하며, 진정으로 마음을 나누고 애정을 쏟는 면모를 그녀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영애의 친어머니 캐릭터를 고려할 때, 영애가 그녀와 근본적인 화해를 하지 못한다는 결말은 작가가 강조하고자 했던 인간다움과 공존의식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우연적 만남의 유일한 실패는 작가의 철저한 계산 하에 이루어진 것이다.²⁴⁾

4. 대사 “앙그리께”에 담긴 의미와 변화 양상

작품 속에는 “앙그리께”라는 작중인물의 대사가 반복적으로 등장

24) 아울러 작품에서 강조되는 ‘인간다움’과 ‘공존의식’이라는 주제는 마해송의 종교적 가치관인 카톨릭 신앙 및 그리스도교적 사랑의 윤리와 연결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밝히는 바이다.

한다. 정확히 총 15번의 “앙그리께”가 반복된다. 중복되어 언급되는 것들을 제외하면 장면 상으로는 총 11장면이다. 총 24장의 소재목으로 이루어진 이야기 중 11장면에 “앙그리께”라는 대사가 반복된다는 것은 두 번의 소재목 당 한번씩은 “앙그리께”라는 대사가 등장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책의 제목이 『앙그리께』인 것으로 보아 이 작품에서 “앙그리께”라는 대사는 흘러 지나가는 주인공의 말로 치부될 것이 아니라, 보다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

“앙그리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이 말은 ‘전과 다르게 행동하겠다’는 뜻이다. “앙그리께”는 일상의 대화 중에 일어나는, 주체의 다짐을 담고 있는 대사라는 점에서 주의 깊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지젝은 “주체적 변형의 본래적 순간은 행위의 순간이 아니라 선언의 순간에 일어난다”²⁵⁾고 말한다. 말을 함으로써 주체가 새로운 변형의 순간을 맞게 된다는 것이다. “앙그리께”라는 대사를 선언이라는 거창한 용어로 갈음할 수는 없겠지만, 주체가 대사를 발화하는 순간의 이전과 이후에 어떻게 달라지는지, 대사에 작중인물의 어떠한 마음이 숨어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는 것은 보다 입체적으로 작품을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앙그리께”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하는 인물은 영애이다. 영애는 총 8장면에서 “앙그리께”라는 대사를 말한다. 이 외 민일리와 민수의 입에서 한 번, 민애의 입에서 한 번, 한순이의 입에서 한 번 “앙그리께”는 반복된다. 이들의 이러한 대사가 각각의 상황에서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영애의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영애는 민애 어머니에게 몰래 캐러멜을 꺼내 먹은 것을 들켰다. 어머니의 추궁에 대답을 하다가 혼이 난다. 영애는 이 때 “앙그리께”라는 말을 한다.

25) 슬라보예 지젝, 조형준 옮김, 『헤겔 레스토랑』, 새물결, 2014, 402면.

영애의 대사는 혼이 나고 있는 서러움을 함축하고 있으며, 잘못된 행동을 뉘우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두 번째 “앙그리께”는 공산군이 동네를 덮친 상황에서 등장한다. 이 소식을 일찍 접한 이웃의 짱구 아버지는 영애를 보고 곧 집의 주인이 될 거라는 이야기를 했었다. 피난을 떠나면 집에 남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짱구 아버지의 이야기를 뒤늦게 이해 한 영애는 “집보다 좋은 것을 준대도 그놈들의 세상이 되었다가는 큰일”(38면)이라고 생각하며, “앙그리께”라는 말을 한다. 이 대사는 중의적 위치에 놓여 있다. 바로 앞전에 단원이 나누어지며 새로운 소재목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앞에 등장한 마산 할머니가 가족들을 숨기고 영애보고 먹여 살리라고 하는 대사와 연결된다면, 영애의 “앙그리께”는 무거운 책임감에 대한 표현이다. 소재목이 새롭게 시작되었기에 전달 받는 사람이 없는 대사라고 생각한다면, 영애의 “앙그리께”는 집 주인 같은 것은 욕심 내지 않을 테니, 무서운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희망과 두려움의 표현이다.

세 번째는 공산군에게 끌려가는 영애가 “앙그리께!”라고 말을 하는 데서 등장한다. 다짜고짜 들어 와서 막무가내로 끌고 가는 공산군에게 저항하며 내뱉은 말이다. 영애는 끌려 간 상황에서도 공산군에게 저항하지 않지만, 마음만은 그들과 다르다. “앙그리께”라는 영애의 말은 순간 휘발되는 것이 아니라, 뒤의 행동과 연관되며 공산군과 영애 자신은 다르다는, 일종의 경계를 짓는 기능을 한다.

네 번째의 “앙그리께”는 김 동무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과격해진 말에 사과를 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영애는 “망할 놈의 총살감”(88면)이라는 말을 하고, 이에 눈빛이 변한 김 동무에게 사과의 의미로 “앙그리께”라는 말을 사용한다. 영애의 말은 김 동무의 성격을 변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살벌한 모습만 보이던 김 동무는 영애의 말에 “별”(89면)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된다.

다섯 번째 상황의 “앙그리께”는 네 번째의 상황과 연결된다. 김 동무와 대화를 하는 와중에 겁을 먹고 경직된 영애의 심리를 드러내며, 별을 보며 조금은 가까워졌지만, 공산군인 김 동무와의 거리감을 표현하는 목적으로 읽힌다.

여섯 번째는 공산군의 무리에서 탈출을 해 국군의 군대를 만난 상황에서 등장한다. 국군 무리에 섞인 영애는 그간의 무서움에 눈물이 줄줄 흐른다. 놀란 국군은 영애를 위로한다. 국군은 “울면 못써! 잉잉하는 국군 일등병이 있나! 하하하.”(103면)하면서 영애를 놀린다. 영애는 “앙그리께”라고 대답을 한다. 이때 영애의 “앙그리께”는 이제 국군과 함께라는 안도의 심리를 드러낸다.

일곱 번째와 여덟 번째의 “앙그리께”는 영애의 투정과 애정을 담은 말이다. 영애는 잠꼬대로 자꾸만 “앙그리께”라는 말을 반복하고, 그것을 본 민애 어머니는 안타까워한다. 민애 어머니의 눈에 영애는 “저렇도록 좋아하고 어리광을 부리는 꿈을 꾸는”(275면) 것처럼 보인다. 영애는 민애 어머니가 친어머니에게 가라고 내쫓는 꿈을 꾸고 있다. 마지막 장면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된 민애 어머니는 뭉클한 마음에 그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고 한다. 영애는 애정 어리가 “앙그리께”라는 말을 하며 작품은 끝이 난다. 대사 “앙그리께”는 애정과 투정이 담긴 영애의 마음이 투영되는 것이며, 민애 어머니가 그것을 깨달으며 둘의 관계가 앞으로 더욱 돈독해질 것임을 내포한다.

영애가 공산군에게 끌려갔다 돌아오기까지의 “앙그리께”는 두려움과 경직된 마음, 공산군에 대한 거리감을 선언하는 영애의 마음이 반영되어 있다면, 영애가 국군을 만나면서 등장하는 “앙그리께”부터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애정과 그 마음을 전달해주는 기능을 한다. 같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앙그리께”는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그 의미는 작품의 초반부, 중반부, 후반부에 따라 각각 다르게

변모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양상은 작가가 작품을 통해 강조하고 싶었던 주제와 맞닿는다. 작가가 작품을 통해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가는 마음의 진정성에 관한 것이었다.

다른 인물을 통해 말해진 “앙그리께”에서는 이러한 면모가 더욱 잘 드러난다. 피난길에 신문 장사를 시작한 민일리와 민수는 돈을 벌러 다니다가 엄마에게 그 일을 들키고 만다. 어머니는 울면서 아이들에게 누가 돈을 벌어오라고 했냐며 다그치고, 민일리와 민수는 “앙그리께”(77면)라고 대답한다. 민일리와 민수의 대답은 자식을 고생시키기 싫은 어머니의 마음과 그 마음을 이해하는 자식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민애의 입에서 말해진 “앙그리께”는 옥순과의 우정을 쌓는 과정에서 등장한다. 옥순을 놀리던 민애는 사과의 의미로 “앙그리께”(159면)라는 말을 하는데, 애정과 장난스러움이 듬뿍 담겨 있다. 또한 한순이는 자신을 걱정해주는 영애에게 “앙그리께”(203면)라는 말을 웃으며 한다. 이 대사 또한 한순이와 영애의 관계가 마음을 나누는 사이로 발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앙그리께”는 각각의 장면에서 작중 인물들의 심리를 효과적으로 드러내며 사용되어왔다. 주체의 마음이 변화하거나 확고해지는 순간에 “앙그리께”는 이를 드러내는 장치로 기능하였다. 이러한 변화 양상은 작품의 전반적인 흐름과 맥을 같이 하며, 작가가 강조하는 ‘인간다움’과 ‘공존의식’을 더욱 잘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5. 결론

지금까지 『앙그리께』를 작품 내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작가

마해송이 처음으로 창작한 장편동화인 『앙그리께』는 장편동화이기에 성취 가능한 여러 특징들을 갖고 있었다. 첫 번째 특징은 작품 내에 등장하는 ‘만남의 우연성’이 긍정적으로 기능하며 작품의 동력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특징은 대사 “앙그리께”가 다수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가 변주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들은 작가가 설정한 작품의 중핵을 더욱 잘 드러내며 상호작용을 하고 있었다.

『앙그리께』 속 작중인물들의 우연한 만남들은 그 자체로서 보상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작중인물들이 겪는 고난과 역경의 생존 투쟁들은 터널 끝에서 보상을 기다리며 인내심 있게 감수해야 하는 중간적 순서가 아니다. 영애와 가족들이 겪어내는 역경과 그때 만나는 새로운 인연들이야말로 생존투쟁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따라서 우연성을 통하여 작중 인물들이 각자의 자리를 찾아나가는 이 작품은 우연성의 남발이 아닌, 그 자체를 승리로 기입하는 데 성공한 이야기로 볼 수 있다.

이때 주인공들의 자아 핵심 자체를 형성하는 ‘절대적 부정성’은 인간다움과 공존의식으로 드러난다. 공포심을 배경으로 해서 출현한 영애의 ‘열정’이나, 민애 어머니와 영애 친어머니의 대비, 민애 어머니와 아버지의 모습, 피난길에 민수에게 약을 준 고수경을 통해 그러한 면모를 확인할 수 있었다. 각각 주인공들의 내면적 본질을 형성하고 있는 중핵은 인간다움의 진정성과 함께 사는 삶에 관한 것이었다.

여러 인물들의 입을 통해 발화된 대사 “앙그리께”의 의미와 변화 양상을 통해서도 이와 같은 의도를 살펴 볼 수 있었다. 주로 영애의 입에서 반복되어 말해진 “앙그리께”는 초반부·중반부·후반부에 각각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고 변화되었다. “앙그리께”는 경직된 마음과 거리감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사용되다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애

정과 그 마음을 전달하는 기능으로 변모한다.

우연적 만남과 같은 대사의 반복으로 이뤄낸 주제의 형상화는 다수의 사건들이 얽히고설키면서 조직된 이야기이기에 가능한 것이다. 작가 마해송이 『앙그리께』를 통해 말하고자 했던 것과 그것이 장편 동화로 형상화되었어야만 했다는 것은 반드시 함께 고려되어야만 하는 문제일 것이다.

■ 참고문헌 ■

1. 기본 자료

마해송, 『앙그리께』, 가톨릭출판사, 1959.

마해송, 『앙그리께』, 문학과지성사, 2014.

2. 논문

김상욱, 「미테올로기적 편견과 현실주의적 방법의 충돌 - 마해송 작품론 - 마해송의 『앙그리께』를 중심으로」, 『어린이문학의 재발견』, 창비, 2006, 179-198면.

김유진, 「마해송 동화와 한국 가톨릭 교회」, 『한국학연구』 제45집,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7, 321-343면.

선안나, 「마해송의 『앙그리께』 분석」, 『아동문학과 반공이데올로기』, 청동거울, 2009, 150-164면.

선안나, 「반공주의 작가와 작품들」, 『아동문학과 반공이데올로기』, 청동거울, 2009, 145-149면.

엄혜숙, 「『앙그리께』를 통해 본 한국 전쟁 체험」, 『앙그리께』, 문학과지성사, 2014, 282-299면.

원중찬, 「해방 전후의 민족현실과 마해송 동화」, 『한국 아동문학의 쟁점』, 창비, 2010, 106-134면.

장영미, 「전쟁의 기억과 기억의 정치학 - 마해송의 『앙그리께』를 중심으로-」, 『돈암어문학』 제31집, 돈암어문학회, 2017, 87-109면.

3. 저서

슬라보예 지젝, 『라캉 카페』, 새물결, 2013.

슬라보예 지젝, 『헤겔 레스토랑』, 새물결, 2013.

이재철, 『아동문학의 이론』, 형설출판사, 1984.



<Abstract>

A Study on the Contingency of Encounter in 『Angriggae』 by Ma Hae-Song

Park, Ju-Hye

『Angriggae』 is the first full-length children's story by Ma Hae-Song. Till now, most previous studies on 『Angriggae』 solely focused on either historical consciousness or political consciousness of the author, or the aspect of a certain religion, and there was no attempt to address why the author chose a format of full-length children's story or its aesthetic element. Therefore, this study aims at investigating the aesthetic element of 『Angriggae』 from its internal aspect.

The contingency of encounter is positively functioning in this story, and becoming the power to lead the story. The accidental encounter of the characters should be considered as a reward itself. Only the new relationships that Yeongae and her family establishes after overcoming a series of misfortunes are the only reward that they could earn from harsh struggles for survival.

This story, in which the characters claim their positions via contingency, is trying to give the idea that contingency could be rewarding as it is, rather than simple overuse of contingency. 'Absolute negativity', constructing the core of the self for the main characters are expressed as human decency and consciousness of

co-existence. The phrase “Angriggae” spoken by various characters is changing in its meaning in the beginning, middle, and late part of the story.

The author’s intention of emphasizing both human decency and consciousness of co-existence via contingent encounters and repetition of “Angriggae” in the story has been successful since it is a children’s story in which various events are intermingled and tangled.

Key words: Ma Hae-Song, 『Angriggae』, Contingency of Encounter, Absolute negativity, The Korean War

투 고 일 : 2019년 4월 27일 심 사 일 : 2019년 5월 20일-6월 11일
게재확정일 : 2019년 6월 12일 수정마감일 : 2019년 6월 26일